프랑크푸르트 쉬른의 전시회 둘

쿠르베와 유랑자들 혹은 심연 떠나기와 심연 몰입하기

프랑크푸르트 뢰머 광장에서 쉬른 쿤스트할레로 가는 길 yip

프랑크푸르트 쉬른 미술의 전당 '쿤스트할레 쉬른'에서 두 개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하나는 '쿠르베. 현대로 가는 꿈'이라는 전시, 다른 하나는 '유랑자들 (Weltenwandeler)' 이란 전시다. 하나는 파리 코뮌(1871)의 혁명 성원이자 위대한 사실주의 작가로 자리매김된 쿠르베의 작품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에서 밀려난 혹은 사회를 떠난 아웃사이더의 작품이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세상에서 온 듯하면서도 간과 못 할 공통점이 있어 관람자를 놀라게 한다.

1

쿠르베 전시를 먼저 둘러보았다. 장 귀스타브 쿠르베 (1819-1877)는 부농의 아들로 태어나 법학을 공부하다가 1840년 법학을 공부하러 파리에 갔으나 법학을 공부하지 않고 화가가 되었다. 1847년 네덜란드 여행 이후 렘브란트 화풍과 베니스 화파에 관심을 쏟고 1950년 대에는 사실주의 화가로서의 화풍을 굳혔다.

쉬른 전시관에서 독일에선 30년만에 처음으로 크게 전시한다는 이번 전시는 원래 사실주의 작가로 알려진 쿠르베의 모습과 좀 다른 부분, 즉 훗날 인상주의를 거쳐 피카소에 이르기까지 현대 초기 작가들과의 연관 관계를 새롭게 부각하려는 의도에서 마련되었다. 홀라인 박물관장에 따르면, 쉬른 전시관은 로댕과 보이스를 연결하는 등 전시를 통해 작가의 새로운 측면을 드러내고 보여 주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이번 전시를 맡은 큐레이터 클라우스 헤르딩 교수에 따르면 "쿠르베가 느낀 것, 예감한 것은 당시 전통으로는 설명될 수 없었던 것"이며 결국 그가 추구한 것은 다음 세대 작가들에게서 구체화되어 드러난 것이라고 하며 쿠르베와 현대와의 연관관계를 설명했다. 이러한 새로운 연관관계는, 사실주의가 표현력과 형식의 거대한 실험장이 되는 현대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분법에 교열을 가해 준다.

전시회의 홍보 비디오에는 인상주의 화가들에게서 볼 수 있는 분위기의 여성 모습이 부각되지만 관람하는 날 검표원 바로 뒤 입구로 들어서서 왼쪽 벽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그림은 후대 화가들의 전위성을 뛰어넘는다. "다알리아와 여성"(Bildnis einer Frau mit Dahlien, 1871/72)이란 작품이다. 어둠 속에 화사하게 피어나는 노란 색 붉은 색 다알리아 다발이 오른쪽 윗부분을 지배하고 화폭의 왼쪽 아랫편에는 책 읽는 여성이 보인다. 이마를 찌푸리고 책을 들여다 보는 모습은 강한 자의식으로 힘을 다하여 책 속의 도를 찾아가고 있는 여성을 보여 준다. 통상 '내면을 표현' 한다고 할 때 암시되는 내면성의 예술과는 전혀 다른 자리에 있다.

쿠르베의 그림은 자연을 그려도 벗은 여자를 그려도 활력이 있다. 이 전시는 지금까지 알려진 그의 모습과 다른 점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알려진 모습을 보완해 준다. 쿠르베의 꿈은 백일몽이 아니라 활력있는 삶을 누리는 유토피아를 향해 있었다. 그래서 돛단배도 노을 경치도 모두 화가의 붓끝에선 생기를 얻었다. 포스터와 휘장에 걸려 있는 '심연의 쿠르베',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쿠르베의 모습을 담은 작품 둘은 다른 쿠르베를 보여 주기 위한 간판이 되었으나, 이 두 작품은 각각 1844/45년 작품과 1846/48 것이다. 50년대 이후 쿠르베는 심연을 떠나 광활한 꿈을 예언자처럼 품고 있었다.

"천사를 본 적이 없어 천사를 그릴 수 없다"고 한 쿠르베는 보들레르나 베를리오즈 같은 예술가들의 모습 뿐 아니라 집시 가족과 아웃사이더 예언자를 화폭에 담아 냈다. 천사보다 집시를 본 예술가는 파리 코뮌이 해체되었을 때 6개월 징역을 살고 5백 프랑 벌금을 내야 했다. 새로 들어선 정부가 거듭 벌금을 물게 하자 스위스로 피난을 가서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유해는 100년 후에야 고향 오르낭으로 돌아갔다.

2

쿠르베 전시실 건너편 "유랑자들" 전시실에는 19세기 20세기의 이른바 '아웃사이더 예술'이 전시되어 있다. 깨알 같은 숫자를 넣어 수백 년 후의 파리를 메가 도시로 묘사하지만 증권가의 숫자는 진짜 숫자가 아니라고 느끼는, 숫자랑 친한 조지 와이드너 (1962-Kentucky), 정신병원에서 그림을 그리며 네로든 히틀러든 스탈린이든 독일 기민당이든 다 싫다는 표식을 남긴 아우구스트 발라 (1936-2001, Maria Gugging),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수차 정신병원을 출입하면서 소설 원고와 많은 소묘를 남긴 헨리 다저(1892-1973, Chicago) 등의 작품이 들어서 있다. 산만한 정서의 나열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른바 '정상' 이라는 기준을 벗어난 작가들이 특정 분야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증명해 보이는 능력 앞에서, 과연 '정상' 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고 자문하게 된다.

두 전시회의 공통점이라면 세상에 순응하기 싫은 사람들의 궤적이다. 차이라면 하나는 그래도 사람의 신화를 유지하고 다른 하나는 11월 7일 저녁 전문가 안내 시간을 이끌 무대 예술가 '요나단 메제'의 주장처럼 사람의 신화를 거부하고 예술의 독재에 ES를 내맡기는 것이다. 물론 요한 메제의 주장은 과거 예술지상주의라든가 패배주의와는 달리 도발적이지만 이처럼 '예술독재'를 선동하는 자기부정 혹은 절대부정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지켜볼 일이다.

전시 둘을 함께 관람할 경우 '유랑자' 전시를 먼저 관람하고 쿠르베 전시실로 갈 것을 권한다.

2011. 1. 30 까지
COURBET. EIN TRAUM VON DER MODERNE
SCHIRNKUNSTHALLE FRANKFURT

2011. 1. 14 까지
WELTENWANDLER
SCHIRNKUNSTHALLE FRANKFURT

얼굴과 탈

드러나는 것과 숨은 것을 한자리에 모은 조각

Loran Hughes-Sachs, Maske des Anderen

Loran Hughes-Sachs, Neptun

탈을 뜻하는 마스크는 얼굴에 걸치는 것 혹은 외관을 뜻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외관만 뜻하는 것은 아니다. 마스크를 통해 존재의 본질이 살짝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무엇이 마스크이고 무엇이 본질인지 알 수 없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화가와 조각가들은 자신이 그리거나 조각하는 것이 외형에 그치지 않고 어떤 본질을 전달하기를 바랐다. 로란 휴스 작스는 한 사람에게 들어 있는 여러 얼굴 혹은 여러 탈의 존재를 간파함으로써 그의 작품 세계에 두 얼굴의 조각이라든가 사람과 다른 존재가 합성한 존재를 만들어 냈다.

'다른 사람의 마스크' (2010)란 작품은 40센티미터 가량 높이의 얼굴 조각인데 얼굴이 둘이다. 두 얼굴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볼 뿐 아니라 아예 다른 얼굴이다. 하나는 두툼한 입술에 배짱 좋은 모습인 반면에 다른 하나는 조금 고뇌하는 듯한 흔적을 담고 있다. 두 얼굴 뿐 아니라 사람의 얼굴과 물고기 꼬리가 결합한 조각도 있다. 제목은 바다의 신 이름을 따서 '넵툰' (2009)이라 했다. 나의 얼굴 당신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나의 탈 당신의 탈은 무엇일까 하는 성찰을 자극한다.

작가 로란 휴스 작스는 트리어 출생으로 미국 출신과 독일 출신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두 문화와 함께 자란 경험은 그의 작품세계에도 투영되고 있다. 현재 프랑크푸르트 근교 호프하임에서 작업실을 갖고 있으며 이번 운 갤러리 전시에서는 조각품 10여 점을 전시한다.

휴스 작스의 작품은 쾨니히 슈타인 운 갤러리 전시 기간 동안 호프하임과 엡슈타인 두 곳에서도 일부 관람할 수 있다. 5일부터 7일까지는 호프하임에서 열리는 아틀리에 단체전에 조각을 출품하는데 여기서는 열 두 살 딸 릴리안 작스가 연필, 볼펜, 싸인펜으로 그린 세밀화도 볼 수 있다.

7일부터 14일까지 시청에서 열리는 엡슈타인 미술협회 주관하는 공모전 전시회에도 휴스 작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넵툰'은 이곳 엡슈타인에서 관람할 수 있다.

ye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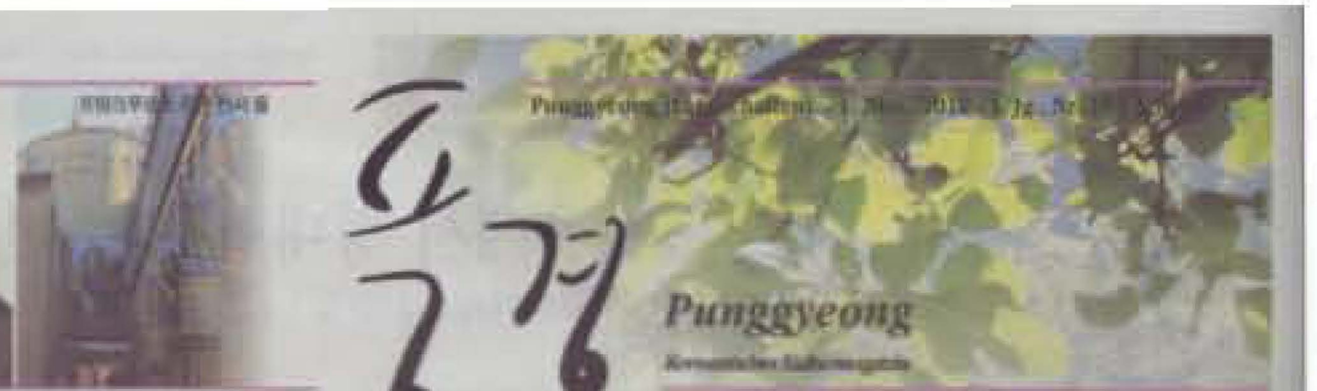
2010.10.29-11.27
Loran Hughes-Sachs
Gemaelde und Skulpturen
- Licht und Schatten und Charakterkoepfe in Stein

Galerie Uhn
Seilerbahnweg 1
(neben Stadtbibliothek)
61462 Koenigstein

화, 목, 금 10-13시, 15-18시
수, 토 10-13시

2010.11.5-7
Atelier + Galerie Hardtke-Rottner
Dr. Rohmer-Weg 2
65719 Hofheim/Ts.
11시부터

2010.11.7-14
Kuenstlerwettbewerb 2010
vom Kulturkreis Eppstein e.V.
Unsere Region"
Buergerhaus Eppstein
Rossertstrasse 21a
65817 Eppstein/Ts.



풍경

Punggyeong
Koreanisches Kulturmagazin

제주 신화가 말걸어오는 돌문화공원

설문대 할망을 기억하는 지름 40미터 수상원형무대 하늘연못

세계인을 위한 독일 화장품 과학의 진수 코스웰라

식물성 천연 원료에서 채취한 독일 기술

www.coswella.com

프랑크푸르트 쉬른의 전시회 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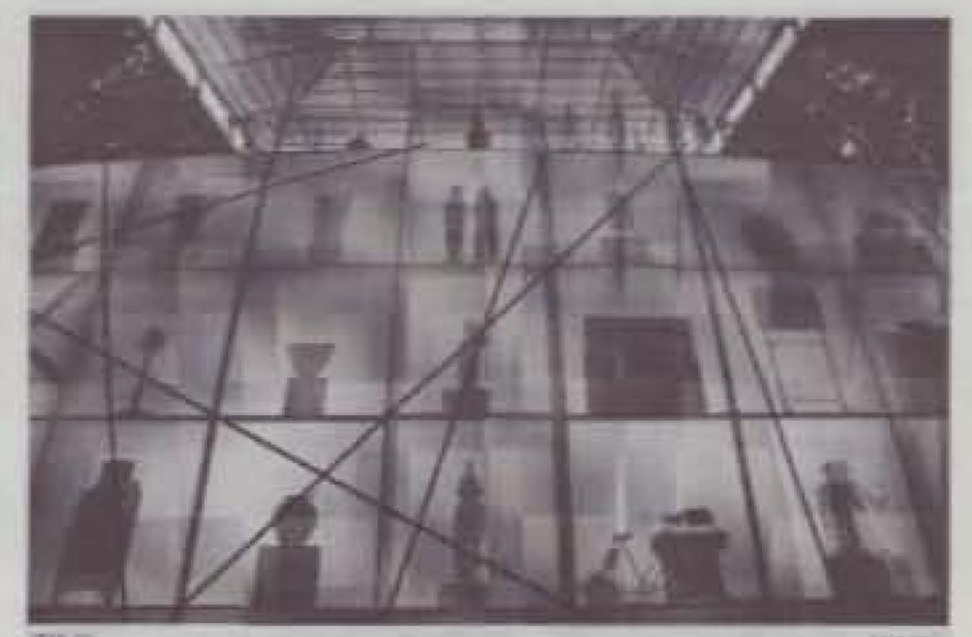
쿠르베와 유랑자들 혹은 심연 미니기와 심연 몰입하기

얼굴과 탈

드러나는 것과 숨은 것을 한자리에 모은 조각

거대한 책장 속의 비밀

인간의 호기심과 의욕이 낳은 거대한 실험이 이루어진 지난 과거를 보여 주는 18개 전시실



그림이 된 글자

중세 이후 글자의 기능과 역할